

16세기 문인들의 백제 회고시 연구*

李 東 宰**

<目 次>

- | | |
|-----------------|-------------|
| I. 緒論 | IV. 문학사적 특징 |
| II. 백제 회고시 현황 | V. 結論 |
| III. 백제 회고시의 내용 | |

<국문 초록>

본고는 16세기 문인들에 의해 지어진 백제 회고시의 현황과 내용, 그 문학사적 특징을 고찰하여서 백제 회고시에 대한 이해와 백제사 인식의 단면을 살펴보았다.

백제 회고시는 백제사와 관련된 유적, 인물 등을 소재로 하여 지은 시를 말한다. 16세기 문인들에 의해 지어진 백제 회고시는 沈彦光을 비롯한 15명의 문인에 의해 44편이 있다. 시의 내용은 대부분 역사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고, 당대 현실을 寓意한 시는 많이 지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에 대한 무관심의 고조이다. 조선의 16세기는 건국이념인 성리학적 가치관이 이미 다방면에 심화된 사회였으나 여전히 權貴들과 士林들 간의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었다.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문인들은 현실정치에 적극 개입하여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 시대에

* 이 논문은 2014년 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2014-0596)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國立 公州大學校 漢文教育科 教授 / leedj@kongju.ac.kr

비해 현실 문제를 寓意할 수 있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둘째, 16세기에는 성리학이 심화되고 보편화되면서 문인들은 성리학적 역사관에 부지불식간에 혼입되어 있었다. 經筵의 중심 교제가 六經과 주자에 의해 재정리된 『資治通鑑綱目』이었다. 『자치통감강목』은 성리학적 관점에서 중국사를 재정리한 책으로, 문인들은 이를 통해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보다는 중국사에 관심이 많았다.

셋째, 백제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 시기에는 우리 역사에 대한 재정리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백제사에 대한 지식은 삼국사기의 기록을 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식도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백제사에 대한 회고적 감정을 드러낸 시는 전 시대인 鮮初에 비해 많이 지어지지 않았으며, 지어진 시도 거의 대부분 역사의 무상감만 드러내고, 감계의 정서를 드러낸 시는 소수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지치주의 관점에서 의자왕을 비판하고 成忠을 褒揚하는 시각으로 드러났다.

【주제어】 百濟史, 懷古詩, 性理學, 經筵, 義子王, 成忠, 夫餘

I. 緒論

16세기 조선은 연산군 7년(1501)부터 중종(재위기간: 1506-1544), 인종(재위기간: 1544-1545), 명종(재위기간: 1545-1567), 선조(재위기간: 1567-1607) 등 5명의 왕이 통치한 기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6세기 전반기는 중종이, 후반부는 명종과 선조가 국정을 다스렸던 시기였다. 중종조에는 즉위 초부터 靖國功臣의 책봉을 둘러싸고 고조된 國王-大臣-三司의 갈등, 빈발했던 모반음모, 趙光祖 등 己卯士林의 전격적인 등장과 숙청, 權臣 金安老의 전횡과 密旨에 의한 제거가 있었고¹⁾, 명종조에는 大尹과 小尹의 형성과 갈등으로 인한 乙巳士禍가 일어났으며, 선조조에는 丁未士禍

1) 김범, 「朝鮮 中宗代 歷史像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사학보』 제17호, 고려사학회, 2004, p.38.

와 이어 붕당의 형성과 대립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어 그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정치적 갈등이 노정된 시기였다.

이러한 정치상황은 문인들로 하여금 정치 일선에 나아가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펼치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문인들은 현실정치에 적극 개입하여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 결과 齋 李荇, 蘇齋 盧守愼 등 뛰어난 문인들이 많이 배출되어 우수한 문학 작품을 많이 남겼지만 전 시대인 조선 초기 성종조의 문인들에 비해 당대의 현실 문제와 관련된 작품이 많이 지어지지 않았다.²⁾

문학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작가의 사상이 반영되지만, 반대로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꿈꾸게 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게 하는 기제로도 작용한다.³⁾ 즉 작가 자신이 처한 현실이 불만족스러울 때에는 과거사에 있었던 사건을 끌어다 당대의 현실을 寓意하기도 한다.

회고시는 패망한 왕조의 유허지를 찾아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追體 驗化한 것으로, 작자의 인생이나 가치관, 철학, 학문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즉 작가가 갖고 있는 사상적 배경과 삶의 가치관에 따라 역사의 폐허지에서 느끼는 흥망성쇠의 무상감과 자신이 처한 당대의 현실 문제를 과거사에 반추하여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회고시는 작가가 살았던 동시대의 정치적 환경과 주된 사상적 경향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작가 개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도 많은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백제 회고시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부여를 비롯한 백제사와 관련된 유적지를 찾아와서 백제사와 관련된 유적, 인물, 사건, 역사 등을

2) 16세기는 우리나라 사상사와 문학사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시기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퇴계와 율곡 등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성리학이 학문적 심화와 함께 사상적 보편성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한국한문학사에서 중종~선조 년간에 용재 이행, 기재 신광한, 호음 정사룡, 소재 노수신, 최경창, 백광훈, 이달 등 기라성 같은 문인들이 많이 배출되어 최고의 전성기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3)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89, pp.267-268.

소재로 하여 지은 시를 말한다. 백제 회고시는 고려말 稼亭 李穀의 「夫餘懷古」⁴⁾시가 지어진 이후, 선초에는 徐居正 등 여러 문인들에 의해 여러 편이 지어졌으며, 16세기에는 漁村 沈彦光을 비롯한 15명이 문인에 의해 44편의 시가 지어졌다.

16세기 문인들에 의해 지어진 백제 회고시는 16세기를 살았던 문인들의 보편적인 사상과 역사 인식, 당시의 시대 상황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16세기의 문인들이 가졌던 백제사에 대한 이해의 단면을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백제 회고시에 대한 연구 성과는 진경환에 의해 부여에서 지어진 부여 회고시의 개괄적 양상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고,⁵⁾ 이동재에 의해 조선 전기 백제 회고시의 현황과 내용, 그 문학사적 의의⁶⁾와 秋江南 孝溫의 백제 회고시에 관한 연구⁷⁾ 성과가 있었을 뿐, 16세기 문인들의 백제 회고시에 대한 정리나 분석을 한 연구 성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첫째, 16세기 문인들에 의해 지어진 백제 회고시의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회고시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고, 셋째, 문학사적 특징을 찾아보아서 백제 회고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16세기 문인들의 백제사 인식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4) 李穀, 『稼亭先生文集』 卷14, 「扶餘懷古」, p.187, “靑丘孕秀應黃河, 溫王生自東明家. 扶蘇山下徙立國, 奇祥異蹟何其多. 衣冠濟濟文物盛, 潛圖伺隙并新羅. 在後孱孫不嗣德, 雕牆峻宇紛奢華. 一旦金城如解瓦, 千尺翠岩名落花. 野人耕種公侯園, 殘碑側畔埋銅駝. 我來訪古輒拭淚, 古事盡入漁樵歌. 千年佳氣掃地盡, 釣龍臺下江自波.”

5) 진경환, 「부여회고시의 몇 가지 양상」, 『한민족문화연구』 제40집, 한민족문화연구학회, 2012.

6) 이동재, 「조선초기 백제회고시 연구」, 『동방한문학』 제52집, 동방한문학회, 2012.

7) 이동재, 「추강 남효온의 백제회고시 연구」, 『한문고전연구』 제26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II. 백제 회고시 현황

백제 회고시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부여를 비롯하여, 웅진[공주], 한성[몽촌토성] 등 백제사와 관련된 유적지를 찾아와서 백제사와 관련된 유적·인물·사건·역사 등을 소재로 하여 지은 시를 말한다.

백제 회고시는 고려말 稼亭 李穀의 「부여회고」 등이 있고, 이후 鮮初에는 서거정을 비롯한 여러 문인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백제의 역사에 대한 회고시가 지어지기 시작했다.⁸⁾ 이후 16세기에도 백제사와 관련된 회고시가 심언광을 비롯한 여러 문인에 의해 지어지고 있으나, 역사의 鑑戒보다는 무상감의 정조가 시의 주종을 이룬다. 이는 己卯士禍 등 정치적 굴절이 많았던 시대적 분위기와 연관이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16세기에 지어진 백제사에 대한 회고의 감정을 드러낸 시들의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의 [표-1]은 16세기에 지어진 시들 가운데 백제사에 대한 회고의 정서가 드러난 시들을 정리한 표이다.

연번	성명	제목	시수	비고
1	沈彦光	扶餘客館 次稼亭李先生韻	율시 1	
2		次崔監司忠齋 淑生白江韻	율시 1	
3		熊津明月	율시 1	「次公州聚遠樓十詠」가운데 회고의 정서가 드러난 시
4	蘇世讓	阜蘭寺	절구 1	충청도읍지 부여군 제영조
5		阜蘭寺	절구 1	
6	鄭士龍	夜渡白馬江	율시 1	
7	李漉	白馬江 次稼亭韻	배율 1	

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동재, 앞의 논문, 2012. 참조.

연번	성명	제목	시수	비고
8	洪春卿	國破山下異昔時	절구 1	송계만록에 수록된 시로 제목이 따로 없어서 첫 구를 제목으로 붙임
9	羅世纘	遊扶餘白馬江	율시 1	
10	李洪男	白馬江 次樓舡板上韻	율시 1	
11	高敬命	次宋進士惟諄韻	율시 1	
12	黃俊良	次樓船白馬江韻	율시 1	
13		天政臺	절구 1	
14		扶餘白馬江	절구 1	
15		次扶餘懷古	배율 1	
17		扶餘 次軒韻 泛舟白馬紀行	율시 2	
18		落花巖	절구 1	「次古迹九絶」시 9수 중 1수
19		釣龍臺	절구 1	「次古迹九絶」시 9수 중 1수
20		自溫臺	절구 1	「次古迹九絶」시 9수 중 1수
21		定方碑	절구 1	「次古迹九絶」시 9수 중 1수
22		弔成忠	절구 1	「次古迹九絶」시 9수 중 1수
23	半月城	절구 1	「次古迹九絶」시 9수 중 1수	
24	迎月臺	절구 1	「次古迹九絶」시 9수 중 1수	
25	皐蘭寺	절구 1	「次古迹九絶」시 9수 중 1수	
26	具鳳齡	汪津	절구 1	
27		躑躅方開	절구 1	
28		虎巖東臺	절구 1	
29		釣龍臺	절구 1	
30		迎月臺	절구 1	
31		落花巖	절구 1	
32		蘇定方碑	절구 1	
33		金庾信碑	절구 1	
34		顯義祠主守洪君所建 祀百濟階伯成忠 高麗正言李存吾 前構講堂	절구 1	
35		李純仁	白馬江	절구 1
36	扶餘		절구 2	
37	送扶餘倅洪可臣		율시 1	

연번	성명	제목	시수	비고
38	李達	過扶餘有懷	율시 1	
39	洪迪	送階伯將軍出師禦新羅	칠고 1	
40	李春英	高蘭寺 次蘇贊成十絕	절구 10	
41	申欽	落花朝嵐	절구 1	「水北亭八景」시 가운데 1수
42		馬江煙雨	절구 1	「水北亭八景」시 가운데 1수
43		高蘭暮磬	절구 1	「水北亭八景」시 가운데 1수
44		溫臺歌管	절구 1	「水北亭八景」시 가운데 1수
44		送李扶餘 景嚴 赴任	율시 1	

위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16세기 조선 문인들에 의해 지어진 백제 회고시는 심언광 등 14명의 문인에 의해 44수 정도의 시를 남기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沈彦光(1487-1540)은 1524년 충청도 도사를 역임할 때, 부여에 들러서 稼亭 李穀의 시인 「부여회고」시를 차운하여 「扶餘客館 次稼亭李先生韻」 1수와 최숙생의 시를 차운하여 「次崔監司鼎齋淑生白江韻」 1수를 지었고, 공주에 머물면서 지은 「次公州聚遠樓十詠」시 10수 가운데 「熊津明月」시는 회고의 정서를 드러낸다.

양곡 蘇世讓(1486-1562)은 1532년 가을 공홍도[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하여 각 고을을 순행할 때, 부여에 들러서 「皐蘭寺」라는 7언 절구 2편을 지었다. 1편은 조선 영조~헌종 연간에 편찬된 『충청도읍지』의 「부여조」에 실려 있고, 다른 1편은 소세양의 문집인 『양곡집』에 실려 있다. 호음 鄭士龍(1491-1570)은 「夜渡白馬江」이라는 7언 율시 1편을 지었는데, 그의 연보와 이 시에 대한 서지사항이 자세하지 않아 언제 지었는지 살펴볼 수가 없다.

중종 년간에 주로 활동한 李瀛(1496-1550)은 퇴계 李滉의 형으로 1546년(명종 1)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하여 부여를 순행할 때, 稼亭 李穀의 「夫餘懷古」시에 차운하여 「白馬江 次稼亭韻」를 지었다. 洪春卿(1497-1548)의 「國破山下異昔時」는 그의 문집에는 실려 있지 않고 權應仁이 지은

시화집인 『松溪漫錄』에 제목이 없이 남아있어서 부득이 첫 구를 따서 제목을 삼았다.

羅世纘(1498-1551)은 1548년 충청도관찰사로 부여를 순행할 때, 「遊扶餘白馬江」 1수를 지었고, 李洪男(1515-?)은 작시 시기 미상의 「白馬江 次樓舡板上韻」 1수를 지었으며,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의병장이었던 高敬命(1533-1592)은 1583년 충청도 한산군수를 지내면서 이웃 고을인 부여를 유람하며 진사인 송유순의 시에 차운하여 「次宋進士惟諄韻」 1수를 지었다.

퇴계의 문인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黃俊良(1517-1563)은 1557년 단양군수로 부임하던 길에 부여에 들러서 「次樓船白馬江韻」 1수, 「天政臺」 1수, 「扶餘白馬江」 1수, 「扶餘 次軒韻 泛舟白馬紀行」 2수, 「次古迹九絕」 9수 가운데 「落花巖」, 「釣龍臺」, 「自溫臺」, 「定方碑」, 「弔成忠」, 「半月城」, 「迎月臺」, 「阜蘭寺」 등 13수가 회고의 정서를 드러낸다. 황준량은 퇴계의 고제자로 영남을 근거지로 하여 성장하였고, 중앙인 서울과 영남지방에서 주로 관직 생활을 역임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백제사에 대한 회고와 감계의 정서를 드러낸 시를 다수 지은 것은 그가 역사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具鳳齡(1526-1586)은 1576년 4월에 충청도관찰사가 되어 부여를 순행할 때, 당시의 부여 현감이었던 洪可臣(1541-1615), 察訪인 金欽 등과 배를 타고 유람하며 지은 「發定山 抵汪津 教授姜君節 縣監洪君可臣 察訪金君欽 同舟向扶餘紀行」시 가운데 「汪津」, 「躑躅方開」, 「虎巖東臺」, 「釣龍臺」, 「迎月臺」, 「落花巖」, 「蘇定方碑」, 「金庾信碑」, 「顯義祠主守洪君所建 祀百濟階伯成忠高麗正言李存吾 前構講堂」 등 9수는 백제사에 대한 회고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李純仁(1533-1592)은 그의 연보가 자세하지 않아 작시의 시기가 미상인 「白馬江」 1수, 「扶餘」 2수, 「送扶餘倅洪可臣」 1수 등을 지었으며, 서얼출신 시인인 蓀谷 李達(1539-?)의 「過扶餘有懷」 1수도 작시의 시기가 미상이다.

洪迪(1549-1591)은 1581년 湖堂 別製試에 장원한 「送階伯將軍出師禦新羅」 1수를 지었는데, 이 시는 16세기 백제 회고시 가운데 유일하게 계백 장군을 소재로 한 시이다. 李春英(1563-1606)은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召募官으로 충청도 부역을 순행할 때, 선배 문인인 소세양이 지은 「阜蘭寺」 시에 차운하여 지은 「高蘭寺 次蘇贊成」 시 10수를 지었다.

申欽은 1596년 이몽학의 난의 진압사령관인 權慄의 종사관으로 부여에 왔을 때, 부여의 「水北亭八景」시 8수를 지었으며, 그 가운데 「落花朝嵐」, 「馬江煙雨」, 「高蘭暮磬」, 「溫臺歌管」 등 4수와 그 후에 지은 「送李扶餘 景嚴赴任」 시에 백제사에 대한 회고의 정서가 드러난다.

이처럼 16세기 문인들에 의해 지어진 백제 회고시는 15명의 문인에 의해 44수가 지어졌다. 정사룡 등 9명의 문인은 각각 1수를 지었고, 황준량은 13수를 짓는 등 문인들에 따라 그 편차가 심하다. 또한 내용은 역사에 대한 무관심의 정조가 대부분이지만 개인의 성향에 따라 회고보다는 감계의 정서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Ⅲ. 백제 회고시의 내용

회고시는 과거의 영광이나 영웅적 행동을 오늘날의 폐허나 無用함과 대조시킴으로써 인간의 노력이 덧없음을 나타내는 부류의 시이다.⁹⁾ 회고시 가운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들어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거나 혹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諷諭·논평하는 시를 영사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회고시의 범주에 묶어서 논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II장의 작품 가운데 몇 수를 선택하여, 첫째, ‘역사의 무관심과 무상감의 토로’, 둘째, ‘역사 회고를 통한 위정자상의 제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9) 劉若愚 著·李章佑 譯 『中國詩學』, 명문당, 1994, pp.100-102. 참조.

1. 역사의 무관심과 무상감의 토로

앞의 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16세기 문인들은 충청도관찰사 등 관리로서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부여를 직접 찾아와서 백제사와 관련된 회고의 정서를 드러낸 시를 지었다. 회고시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追體驗化하는 것으로, 작자의 인생관이나 가치관, 철학, 학문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16세기 문인들이 지은 백제사와 관련된 회고시는 작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당대 현실을 寓意한 시보다는 역사의 유희지에서 느끼는 역사의 무상감과 여기에서 촉발된 인생에 대한 덧없음을 드러낸 시가 주종을 이룬다.

본 절에서는 백제의 유희지에서 역사의 무상감을 드러낸 시 몇 수를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소세양이 지은 「皐蘭寺」시로 『충청도읍지』에 실린 시이다.

半月城空餘片石	반월성은 텅 비고 조각돌만 남아있고
釣龍臺沒送寒潮	조룡대는 잠기고 찬 물결만 일렁인다.
千年不盡英雄恨	천 년이 지났어도 영웅의 한은 다하지 않았으나
獨立西風感二毛	홀로 서서 서풍을 맞으며 백발을 서러워한다. ¹⁰⁾

시의 전반부는 작자가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의 왕궁이었던 부소산의 기슭에 있는 고란사에 찾아와서 본 당대 부여의 모습이다. 반월성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부여의 도성으로 백마강이 동북쪽에서 서쪽으로 부소산을 감싸고 남쪽으로 흘러서 동쪽의 방비만 잘하면 천혜의 요새였으나, 의자왕의 실정으로 나당연합군의 침략을 받아 폐허지로 변한 곳이다.

작자가 찾아와서 목도한 반월성은 백제의 패망과 함께 무너진 성벽의

10) 『忠淸道邑誌』 卷5, 「夫餘」조, 「皐蘭寺」.

흔적만 남아있고, 羅唐聯合軍의 사령관인 蘇定方이 백제의 수호신인 용을 낚았다는 조룡대도 물속에 잠겨 있어서 보이지 않고 찬 물결만 일렁이고 있었다.

시의 후반부는 작자가 고란사에서 느끼는 회고의 감정이다. 작자는 백제의 유허지인 고란사에서 백제사에 대한 회고나 백제사를 통해 당대의 현실에 대한 교훈이나 감계의 정서를 드러내지 않고, 다만 “홀로 서서 서풍을 맞으며 백발을 서러워한다.”라고 독백하며, 덧없이 흐르는 세월을 따라 잊혀진 역사의 무상함과 자신이 늙어감에 대한 장탄식만 늘어놓고 있다.

이처럼 백제의 유허지인 부여에 찾아와서 역사에 대한 무관심과 의례적인 弔古의 감정만을 드러낸 시는 다음 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시는 退溪 李滉의 형인 李瀼가 충청도관찰사로 부여를 순행하며 지은 「白馬江 次稼亭韻」이다.

千年舊物只山河	천 년의 옛 흔적은 다만 산하뿐
鋤犁何處公侯家	밭으로 변한 곳, 어느 곳이 공후의 집이던가?
天氣已終地靈衰	하늘 기운과 땅의 영기는 이미 사라졌고
蕭條籬落還無多	쓸쓸히 무너진 울타리마저 흔치가 않구나.
弔古能無感慨情	옛 일을 조문해도 감개한 마음마저 없으니
風前傾倒金巨羅	바람을 맞으며 금 술잔을 기울인다. ¹¹⁾

(後略)

이 시는 시의 제목이 말해주듯, 고려 말 문인인 稼亭 李穀이 지은 「扶餘懷古」를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시의 전반부는 작자가 부여에 와서 목도한 부여의 모습이다. 작자가 부여에 찾아왔을 때는 백제가 망한지 이미 90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백제의 옛 산하만 예전 그대로 남아있고, 화려했던 궁실이나 귀족들의 집은 흔적조차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작자는 “하늘 기운과 땅의 영기는 이미 사라졌고, 쓸쓸히 무너진 울

11) 李瀼, 『溫溪先生逸稿』 卷1, 「白馬江 次稼亭韻」, p.270.

타리마저 흔치가 않구나.”라고 읊고 있다. 즉 부여땅은 패망한 도읍지라 신령한 기운마저 감돌지 않으며, 여기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마저 보이지 않아 황량함만 더한다고 느낀 것이다.

시의 후반부는 작자가 백제의 유허지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작자는 백제의 유허지를 찾아 ‘백제사에 대한 弔古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이나 느낌조차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무심히 술잔만 비우고 있다. 이는 작자가 백제사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부족한 것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백제사에 대한 무관심의 정서는 다음 시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

다음의 시는 羅世纘(1498-1551)이 1548년 충청도관찰사로 부여를 순행하며 지은 「遊扶餘白馬江」시이다.

夕醉加羅酒	저녁에 침향목 담근 술에 취하고
晨登白馬舟	새벽에 백마강의 배에 오른다.
斷松負石苔	절벽엔 소나무가 괴로이 붙어있고
疏雨結雲愁	가랑비 먹구름엔 수심이 엉켜있네.
宇宙風塵過	이 세상에 풍진이 사라지니
山河日月流	산하엔 세월만 흐르는구나.
浮沈惟水鳥	뜨고 잠기는 건 물새들뿐
應洗濟王羞	분명 백제왕의 수치를 씻었으리라. ¹²⁾

시의 수련은 작자가 달빛 아래 백마강에 배를 띄우고 酒宴을 베푸는 장면이다. 시의 함련은 작자가 백마강의 배 위에서 올려다 본 부소산 북쪽, 즉 낙화암 절벽의 모습이다. 낙화암은 백제가 패망하자 삼천궁녀들이 망국의 한을 품고 백마강으로 투신하여 자결한 곳이다. 작자는 낙화암 절벽이 백제가 패망한지 900여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곳에 걸려있는 먹구름은 여전히 당시의 한을 머금고 있는 것으

12) 羅世纘, 『松齋遺稿』 卷1, 「遊扶餘白馬江」, p.53.

로 느낀 것이다.

경련은 다시 작자가 살고 있는 당대의 부여의 모습과 자신의 소회이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부여의 산천은 의구하여 부소산은 백제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푸르고 백마강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흐른다. 그리고 이 땅에 터를 잡고 사는 유민들은 그들의 역사인 백제사에 관심이 없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작가는 한 많은 과거사는 세월과 함께 흘러 결국 잊어진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작자가 갖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작자는 패망한 백제의 왕조도 자연의 현상과 같이 순환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즉 역사는 흥망성쇠를 반복하므로 인위적인 노력으로 거부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법칙이므로, 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관심의 정서는 구봉령의 시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

다음의 시는 具鳳齡(1526-1586)이 1576년 4월에 충청도관찰사가 되어 부여를 순행할 때, 당시의 부여 현감이었던 洪可臣, 찰방인 金欽 등과 배를 타고 유람하며 지은 「發定山 抵汪津 教授姜君節 縣監洪君可臣 察訪金君欽 同舟向扶餘紀行」 연작시 가운데 「躑躅方開」이다.

軟綠新紅最可人	연녹색 잎, 붉은 꽃잎 매우 보기 좋은데
巖頭獨立倍傷神	낙화암에 홀로 서있으니 마음만 더욱 아프구나.
故園景物今如許	옛 정원의 경치도 거의 지금과 같았을 텐데
客路天涯又一春	나그넷길 하늘 끝에서 또 한 봄을 맞는다. ¹³⁾

작자가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부여를 찾았을 때에는 초여름이었다. 그리하여 부소산 북쪽에 있는 낙화암 절벽엔 연녹색 신록이 파릇파릇하고 군데군데 철쭉꽃이 붉게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어서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내고 있었다. 작자는 신록과 꽃이 아름답게 펼

13) 具鳳齡, 『栢潭先生文集』 卷2, 「發定山 抵汪津 教授姜君節 縣監洪君可臣 察訪金君欽 同舟向扶餘紀行」, 「躑躅方開」, p.399.

쳐진 낙화암 승경을 마주하고서는 백제의 패망과 함께 꽃다운 청춘을 떨어지는 꽃잎처럼 산화한 삼천궁녀의 모습으로 치환되어 승경을 마주한 기쁨보다는 과거사에서 연유한 슬픔에 잠시 ‘수심’에 빠진다. 그러나 이 수심은 잠시, 일순간의 감정이었다. 그리하여 작가는 곧바로 현실로 돌아와서 “나그넷길 하늘 끝에서 또 한 봄을 맞는다.”라며 나그네 생활에 대한 고단함을 토로하며, 자신의 ‘수심’은 나그네 생활의 고달픔에서 생긴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작자는 백제의 유허지인 낙화암에 찾아와서 승경의 예찬과 함께 오랜 나그네 생활의 고단함만 토로하고 있을 뿐, 낙화암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찾거나 당대 현실과 결부된 어떤 의미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작자가 갖고 있는 백제사에 대한 인식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역사의 유허지에서 느끼는 역사의 무상감은 다음의 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시는 李春英(1563-1606)이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召募官으로 충청도 부여를 순행할 때, 선배 문인인 소세양이 지은 「皐蘭寺」시에 차운하여 지은 「高蘭寺 次蘇贊成」시 10수 가운데, 4번째 시이다.

興亡誰與問當時	당시의 흥망을 누구에게 물어볼거나?
滿眼空餘麥秀悲	두 눈 가득 속절없이 맥수가만 남아 슬프구나.
泗水卽今流袞袞	사비강은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흐르는데
遺民不覺老垂垂	유민들은 알지 못하고 서서히 늙어가는구나. ¹⁴⁾

일반적으로 한시는 경물의 묘사를 먼저하고 여기에 작자의 감회를 붙이는 觸景生情으로 미감의 구도를 짠다. 그러나 이 시는 고란사와 그 주변 경관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작자의 주관적인 정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작자는 기구에서 “당시의 흥망을 누구에게 물어볼거나?”

14) 李春英, 『體素集』上, 「高蘭寺 次蘇贊成」其四, p.359.

라고 自問하고, 이어 승구와 전구, 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자신이 느끼는 백제사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즉 작자는 ‘부여의 부소산을 감싸고 흐르는 사비강[백마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흐르고, 이 땅에 터를 잡고 사는 백제의 유민들은 이 땅이 백제의 도읍지였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것이 슬플 뿐이다.’라고 自答한 것이다.

이는 작가가 오랜 세월동안 백제 땅에 터를 잡고 사는 유민들도 백제사에 관심이 없는데, 나그네인 자신이 이 땅의 역사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 무관심은 다음 시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

다음의 시는 象村 申欽이 1596년 李夢鶴의 난의 진압사령관인 權慄의 종사관으로 부여에 와서 지은 「水北亭八景」시 가운데 여덟 번째 시인 「溫臺歌管」이다.

荒臺遺跡自傷神	황폐한 온대의 유적 저절로 사람을 슬프게 하네.
野草離離幾度春	들풀만 무성한데 몇 세월을 보냈던가?
滄海桑田亦閑事	상전벽해 그 모두가 속절없는 일이로다
東風歌管屬聞民	동풍에 노래 소리도 한가한 백성들 차지로세. ¹⁵⁾

이 시의 전반부는 작자가 찾아와 서 본 백제의 승경지였던 자온대의 모습이다. 작자가 백제의 승경지였던 자온대에 찾아왔을 때는 백제가 폐망한 지 이미 900여년이 지난 뒤라 황폐한 폐허지로 변해 들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시의 전반부는 작자가 자온대에서 느낀 역사에 대한 소회이다. 작자는 화려했던 자온대가 폐허로 변한 것도 슬픈데, 여기에 더하여 백제의 옛 땅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과거 백제의 한을 잊고 흥겹게 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며 역사의 무상감을 느낀 것이다. 그리하여 작자는 그의 다른 시에서도 “백제의 왕업도 허무함 그것인데, 부생들이 백년

15) 申欽, 『象村稿』 卷19, 「水北亭八景」, 「溫臺歌管」, p.492.

산다고 그 누가 말했는가?”¹⁶⁾라든가, “오백년 그 세월이 일장의 꿈이런가?”¹⁷⁾라고 읊었다.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 의미나 감계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 다만 백제사에 대한 관심과 여기에서 찾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고민이 없이 역사의 유희지에서 느끼는 허무한 감정을 흘러간 유행가를 부르듯이 상투적인 가락으로 백제사를 회고하고 있을 뿐이다.

16세기는 조선의 건국이념인 성리학적 정치 이념에 충실한 정치 현실로 복귀되었지만 여전히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는 權貴들과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사람들 간의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어 정치적 파행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문인들은 당대 현실에 대한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전 시대에 비해 역사적인 관심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백제사에 대한 회고적 감정을 드러낸 시는 전 시대인 鮮初에 비해 많이 지어지지 않았으며, 지어진 시도 거의 대부분 당대의 현실과 거리가 먼 역사의 무상감만 드러내고, 당대의 현실에 대한 寓意를 담은 鑑戒詩가 많이 지어지지 않았다.

2. 역사의 鑑戒를 통한 爲政者像의 제시

16세기는 15세기 말 연산군의 폭정을 중종반정으로 종식시키고 새롭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소요돌이가 지속되었다. 즉 중종반정 이후에도 기묘사화와 을사사화가 일어나고 연이어 정미사화가 일어나는 등 정치적 파행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정치 현실은 문인들로

16) 申欽, 『象村稿』 卷19, 「水北亭八景」, ‘落花朝風’, p.492, “濟王家業亦徒然, 誰把浮生擬百年.”

17) 申欽, 『象村稿』 卷19, 「水北亭八景」, ‘馬江煙雨’, p.492, “五百年間一夢空, 苔磯今屬釣魚翁.”

하여금 당대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을 두렵게 여기고, 이를 꺼리게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는 결과적으로 역사에 대한 무관심으로 흐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당대 현실에 寓意를 담은 시들이 적게 지어졌고, 향준량 등 소수의 의식이 있는 문인들에 의해 감계의 정서가 담긴 시들이 지어진다. 이러한 鑑戒詩는 주로 당대 정치사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至治主義 정신의 두 축인 內聖外王의 관점과 임금을 보필할 문인상의 정립으로 드러난다. 즉 의자왕의 失德과 失政을 비판하고 성충과 같은 충신을 褒揚하는 시각으로 드러난다.

먼저, 임금이 환락에 빠져서 失德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경계한 시를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황준량이 고려말 稼亭 李穀의 시에 차운한 「次扶餘懷古」시이다.

檀箕千載舊山河	단군과 기자이래, 천 년된 옛 산하
角上蠻觸分三家	작은 땅에서 세 나라로 나뉘어 부질없이 싸웠지.
溫王英武殆天授	영특하고 용맹한 온조왕이 하늘의 뜻을 받아
胥宇南遷年紀多	남쪽으로 내려와 나라를 세운지 오래되었네.
狡童忝祖逞侈伏	교활한 아이 지나친 사치로 조상을 더럽혀
舞榭歌臺藏綺羅	무대를 짓고 무희들과 놀아났다네.
飛渡那知有擒虎	한금호가 날듯이 강 건너 올 줄 어찌 알았으랴?
昏酣只解耽麗華	장려화에 정신이 혼미하게 취할 줄만 알았지.
從天兵下壓孤塘	천병에 의해 외로운 성마저 함락당해 버리니
大澤龍亡巖墜花	큰 못엔 용이 죽고 절벽에선 꽃이 지었네.
興亡無迹物獨壽	흥망의 흔적은 없고 산천만 홀로 남았는데
苔蝕斷碑荆埋駝	깨진 비와 이끼 낀 동타만 가시덤불 속에 묻혔네.
倚樓賢守愛容深	누대에 기대어 있는 어진 수령 심덕이 있으니
月艇載酒聞漁歌	달밤에 술을 싣고 어부가를 듣노라
臨風懷舊一長嘯	바람 맞으며 들려오는 피리소리에 옛 생각 잠기니
扶蘇木落江生波	부소산엔 나뭇잎 지고, 백마강엔 물결이 이네. ¹⁸⁾

18) 黃俊良, 『錦溪集』 卷3, 「次扶餘懷古」, p.29.

이 시의 작가인 황준량은 춘추관기사관을 역임하고, 『중종실록』과 『인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한 것처럼 역사에 대한 남다른 식견과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백제사에 대한 회고시도 13편 이상 남겼다.

시의 전반부(①행~④행)는 백제의 건국의 역사이다. 단군조선이 망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새로 건국되었으며, 백제는 온조왕이 개국한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의 중반부(⑤행~⑩행)는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이 荒淫에 빠져 제대로 국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그 결과 나당연합군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한 것을 중국 위진남북조시대 陳後主의 故事¹⁹⁾에 빗대어 서술하고 하고 있다.

기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은 날마다 백관을 거느리고 大王浦에 나아가서 宴會를 즐기며 국정을 돌보지 않았고, 신라와의 빈번한 전쟁으로 국력을 피폐시켜 민생을 파탄에 몰아넣었으며, 외교적으로도 당나라와 외교관계가 단절되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였다. 이틈을 타서 신라와 당나라는 군사동맹을 맺고 백제를 침략하여 패망시킨 것이다.

시의 후반부(⑪행~⑯행)는 작가가 부여에 찾아와서 느낀 소감이다. 작자가 바라본 부여의 모습은 가시덤불 속에 銅駝만 남아있었다. 銅駝는 ‘銅駝荊棘’에서 유래한 말로 변란이 일어나 ‘폐허가 된 풍경’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하여 작자는 그의 다른 시에서도 “밤낮 가무에 취해서 놀아났으니, 궁궐한 백성들 일어 죽는 것을 생각지 않았네.”²⁰⁾라고 읊으며, 백제가 망한 것은 의자왕이 황음에 빠져서 국정을 돌보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19) 『陳書』卷6, 「後主」, “是時韓擒虎率衆自新林至于石子岡, 任忠出降擒虎. 仍引擒虎經朱雀航趣宮城, 自南掖門入 於是城內文武百司皆遁出. … 後主聞兵至, 後宮人十餘出後堂景陽殿. … 及夜, 爲隋軍所執.”

20) 黃俊良, 『錦溪集』卷3, p.24, “酣歌日夜流連地, 不念窮村凍死民.”

이는 작자가 가지고 있는 군주관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군왕은 매일 경연에 참석하여 신하와 함께 六經의 강론을 통해 安逸과 享樂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는 수양을 하여야 하며, 역사를 통해 흥망성쇠의 교훈을 본받아 賢能한 신하를 중용하여야만 사직과 백성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황준량의 의지는 다음의 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시는 황준량의 「次樓船白馬江韻」시이다.

翠壁排紅錦	푸른 절벽은 붉은 비단과 어울리고
長風漾畫舟	긴 바람에 그림 같은 배는 흔들흔들
興亡嗟已逝	아! 흥망은 이미 지나간 옛일
魚鳥豈知愁	물고기와 새가 어찌 근심을 알리?
花落巖空立	낙화암은 쓸쓸히 서있고
龍亡水自流	용이 죽은 백마강은 절로 흐르네.
分明殷鑑在	역사는 분명 교훈이 있는 법
留作後王羞	후대의 왕들은 유의하여 받아들여야 하리. ²¹⁾

시의 전반부는 작자가 백마강에서 뱃놀이를 하며 둘러 본 부소산에 있는 낙화암의 모습이다. 낙화암 절벽에는 푸른 신록과 철쭉꽃이 어울려 한 폭의 그림이 되어 백마강의 거울 같은 수면 위에 投影되어 있고 화자는 그 속을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시의 후반부는 작자의 역사에 대한 의지의 표백이다. 백제의 패망과 함께 산화한 삼천궁녀들의 넋이 서린 낙화암과 백제의 수호신인 용이 죽은 조룡대에 직접 찾아와서 보고 느낀 인간사에 대한 감회이다. 그리하여 작자는 “역사는 분명 교훈이 있는 법, 후대의 왕들은 유의하여 받아들여야 하리.”라고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작자가 백제의 패망과 같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과거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고자한

21) 黃俊良, 『錦溪集』卷3, 「次樓船白馬江韻」, p.24.

것이다. 즉 군주는 사치와 물욕을 벗어나 天理를 보전하여 성인의 정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治者인 군주가 부모의 마음으로 통치하여야 하며, 治不治의 궁극적 책임은 군주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권신과 척신, 환관의 경계를 통하여 권력의 사유화를 막고 재정의 낭비와 세금의 濫徵을 경계하고, 賢能한 인재의 중용을 통한 협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²⁾

다음으로, 문인상의 제시를 살펴본다.

16세기 문인들의 백제 회고시에 나오는 인물은 성충과 계백 등 2명에 불과하다. 이는 조선 초기의 백제 회고시에 등장하는 인물이 成忠, 興首, 階伯을 비롯하여, 백제부흥운동의 지도자였던 道琛, 흑지상치 등이 나오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 살펴보면, 심언광은 성충을 시의 중심 소재로 언급한 시가 4수가 있고, 문이 1편이 있다. 이밖에 성충을 소재로 한 시는 황준량 1수, 이순인 1수, 이달 1수, 이춘영 1수 등이 있으며, 계백을 중심 소재로 한 시는 홍적의 시 1수²³⁾가 있다.

그 가운데 성충을 소재로 한 시 몇 수를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심언광의 「次崔監司忠齋 淑生白江韻」시이다.

2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민족대백과사전』, ‘지치주의’조.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1876&cid=46649&categoryId=46649>”

23) 洪迪, 『荷衣遺稿』, 「送階伯將軍出師禦新羅 應製居首」, p.515, “函書一啓天政臺, 陰鬼夜鳴宮槐樹. 紛紛時變不忍道, 廟社之危眞一縷. 荒郊無限送君情, 撫劍相看淚如雨. 憶昔先王定鼎初, 基業自是金湯固. 綢繆更在天未陰, 榻外誰人敢余侮. 堂堂國勢六百年, 戰必勝之攻必取. 繁華從古敵國媒, 玉殿春深日歌舞. 鷄林百里楚練明, 大唐兵截滄溟渡. 舟師昨報馬江口, 陸擊初登炭峴路. 邊沙漠漠羽書急, 半月城孤天色暮. 成忠一語悔何及, 臨亂獨倚將軍武. 將軍受鉞以死誓, 壯士揚威如猛虎. 千金買馬百金甲, 叱咤奔雷有餘怒. 兵家務精不務多, 所貴沉機嚴部伍. 存亡都在此一舉, 好勇還須臨事懼. 懸知勝形在日中, 左揮雕戈右白羽. 歸程落日照大旗, 直向黃山生夕霧. 轅門斬盡兩將頭, 然後歸來謝明主. 時危相贈唯此耳, 吾爲子起歌都護.”

春江氷未釋	봄날 강의 얼음도 풀지 않아
二月絶行舟	2월인데도 뱃길이 끊겼구나.
草樹荒城路	황성길 길가의 초목들과
煙霞倦客愁	저녁노을은 게으른 나그네를 수심에 들게 하네.
英雄孤鳥過	영웅도 외로이 새처럼 지나갔고
名字幾人留	이름을 몇 사람이나 남겼나?
藥石成忠死	약석 같은 성충도 죽었으니
山河萬古羞	산하만 만고에 부끄럽게 하는구나. ²⁴⁾

시의 전반부는 작자가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부여를 찾아와서 목도한 풍경과 여기에서 느낀 소회이다. 작자가 부여에 온 시기가 2월의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래서 백마강의 얼음이 아직 녹지 않아 뱃길도 끊겼으며, 초목들도 싹도 트지 않아 주위가 황량하였다. 여기에 더해 해가 서쪽으로 지는 저녁이라 더욱 쓸쓸한 기분이 들게 하였다.

시의 후반부는 백제의 마지막 유허지에서 느끼는 화자의 감회이다. 작자는 천하를 호령했던 영웅들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 이름이 잊혀졌지만, 성충은 의자왕을 위해 藥石 같은 충언을 거듭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의 충정은 만고에 불변하는 江河와 같이 영원히 기억되어 후인들의 忠臣像으로 남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작자는 그의 다른 시에서도 “천추의 세월 속 성충이라는 한 인물, 그 흔적은 초부들의 노래 속에 남아 있네.”²⁵⁾, “백제의 흥망을 명월에게 물어보니, 달은 비록 말이 없지만 분명 홀로 알리라. 성충은 죽었지만 혼은 돌아가지 않고, 천추의 한을 머금고 강가의 꽃으로 피었으리라.”²⁶⁾라고 읊으며, 성충의 넋을 기리고 있다.

24) 沈彦光, 『漁村集』 卷2, 「次崔監司虛齋 淑生白江韻」, p.125.

25) 沈彦光, 『漁村集』 卷2, 「扶餘客館 次稼亭李先生韻」, p.124, “人物千秋一成忠, 陳迹猶入樵夫歌.”

26) 沈彦光, 『漁村集』 卷2, 「次公州聚遠樓十詠」, ‘熊津明月’, p.125, “百濟興亡問明月, 月雖不言應獨知. 成忠死去魂不來, 千秋遺恨江花開.”

이처럼 백제의 역사에서 성충을 문인상으로 제시한 시는 황준량에게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시는 황준량의 「次古迹九絶」 9수 가운데 「弔成忠」시이다.

天厭民離勢已孤	하늘도 버리고 백성도 이반되어 이미 고립된 형세
唐羅兵合蹴扶蘇	나당연합군은 부소산을 짓밟았네.
扼吭制敵謀何晚	적을 제압할 계책 어찌 그리 늦었는지
一死猶成烈丈夫	한 번 죽어 오히려 의열장부 되었구나. ²⁷⁾

시의 기구와 승구는 백제가 망한 이유이다. 백제가 망한 이유는 의자왕이 황음무도하여 국정을 돌보지 않아 천심과 민심을 모두 잃게 되고, 결국 나당연합군의 침략을 받아 망하였다. 그래서 『삼국유사』, 「기이·태종 무열왕」조에 의하면, “서울 우물물과 사비수의 물이 핏빛으로 변했다.”²⁸⁾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실제 상황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우물과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었다는 것은 성충과 같은 충신과 수없이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처형당하여, 이미 민심이 이반되었음을 암시한다.²⁹⁾

시의 전구와 결구는 의자왕이 성충의 간언을 듣지 않아서 도성이 함락된 이후에 뒤늦은 후회와 임금이 충언하는 자신을 별주어 귀양을 보냈지만 도리어 죽어가면서도 국가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 성충의 義烈의 모습을 褒揚하고 있다.

그리하여 작자는 그의 다른 글에서도 성충을 “살아서는 당시의 임금의 잘못을 바로 잡았고 죽어서는 후세의 영웅으로 격려 받았네. 살아서는 부끄러움이 없었고 죽어서는 원통함이 없었으니 이는 실로 군자가 즐기는 바이네.”³⁰⁾라고 평가하였다. 이어 “내 마음도 옛일을 슬퍼하며

27) 黃俊良, 『錦溪集』 卷3, 「次古迹九絶」, ‘弔成忠’, p.24.

28) 『삼국사기』, 「백제본기·의자왕 20년조」, “二十年, 春二月. 王都井水血色, 西海濱小魚出死, 百姓食之不能盡, 泗泚河水亦如血色.”

29) 이동계, 앞의 논문, 2013, p.109. 참조.

높은 자취 사모하여 경의를 표하노라. 같은 시기에 살지 않았지만 비명에 죽은 선생의 한을 벗기지 못했으니, 쓸쓸히 깨끗하게 목욕재계하고 청사를 어루만지며 슬퍼하노라.”³⁰⁾라며, 성충을 추모하고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성충을 추모하여 자기화하는 시는 다음의 시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

다음의 시는 이춘영이 1592년 임진왜란이 격심하여지자 召募官으로 부여에 왔을 때, 고란사를 구경하며 소세양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高蘭寺 次蘇贊成」시 10수 가운데 8번째 시이다.

忠臣碎首國隨殘	충신은 머리를 부수고 순국하였으니
往事千年膽亦寒	천 년 전의 일을 생각하니 간담이 싸늘해지네.
義烈卽今如昨日	의열은 지금도 어제 일 같은데
空教志士髮衝冠	속절없이 지사들로 하여금 머리털을 곧추서게 하네. ³²⁾

이 시는 한시의 일반적인 구도인 先景後情의 구도가 아닌 全情의 구도로만 짜여져 있다. 즉 시가 화자의 심회만을 서술하여 독자로 하여금 이목을 집중하게 하고 있다. 작자는 성충과 같은 충신의 죽음이 천 년 전의 과거사가 아니라 당대에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리하여 작자는 고란사에 와서 성충을 추모하고 성충과 같은 행위는 당대의 자신과 같은 문인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즉 작가는 성충이 荒淫에 빠져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의자왕에게 극간을 하다가 유배를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국난극복의 대책을 상소한 것은 자신들과 같은 문인들의 역할이라고 여긴 것이다.

30) 沈彦光, 『漁村集』 卷9, 「弔成忠文」, p. 194, “生而矯當時君上之過, 死而激後世英雄之志. 生無愧而死無恨, 固君子之所樂.”

31) 沈彦光, 『漁村集』 卷9, 「弔成忠文」, p.194, “余心之盡然悼古, 揖高躅而起敬. 生不得以同時, 恨不能脫夫子於非命. 落莫兮清齋, 撫青史而惆悵.”

32) 李春英, 『體素集』 上, 「高蘭寺 次蘇贊成十絕」 其八, p.359.

16세기에는 조선의 건국이념인 성리학이 심화됨과 함께 보편화 되면서,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어 요순시대를 만들기 위한 至治主義가 주창되었다. 이를 위해 왕은 內聖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수양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군주는 매일같이 經筵에 나아가 신하들과 經史를 토론하여야만 했다. 經史의 학습을 통해 국왕을 위시한 국정 운영자들이 정치적 본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합의를 공유하는 것이었다.³³⁾ 따라서 16세기 문인들에 의해 지어진 백제 회고시 가운데 감계의 정서를 드러낸 시는 지치주의 관점에서 의자왕을 비판하고 成忠을 褒揚하는 시각으로 드러난 것이다.

IV. 문학사적 특징

회고시는 行旅者의 감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행시에서 배태되었지만 더 이상 행려의 고단함이나 그리움, 자연 감상의 기쁨 등을 말하지 않고, 역사유적의 방문을 계기로 죽음과 멸망의 필연성 등 인간사의 덧없음을 주요 내용으로 거듭난다.³⁴⁾ 또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들어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거나 혹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諷諭·논평하기도 한다.

역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악된 인간의 자기의식이고, 문학의 효용은 인간의 내재된 도덕성을 발휘하여 사회의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와 문학은 오래전부터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왔다. 특히 시 속에서 역사를 통하여 작가의 의식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詩經』과 『離騷』 등, 한시의 첫 출발과 더불어 시작

33) 오항녕, 「조선 초기 경연의 『자치통감강목』 강의」, 『한국사상사학』 제9집, 한국사상사학회, 1997, p.116. 참조.

34) 유혜영, 「‘회고’의 세 가지 개념에 관한 소고」, 『중국문학이론』 제9집, 한국중국문학이론학회, 2007, p.14.

된 이래로 ‘詠史’, ‘懷古’, ‘覽古’, ‘弔古’, ‘述古’ 등의 다양한 명칭 아래 구사되며 한시의 주요한 제재가 되어 왔다.³⁵⁾ 이렇듯 회고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과거사의 추체험을 통해 당대의 현실을 비취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백제 회고시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부여를 비롯하여, 웅진[공주], 한성[몽촌토성] 등 백제사와 관련된 유적지를 찾아와서 백제사와 관련된 유적·인물·사건·역사 등을 소재로 하여 지은 시를 말한다.

백제 회고시는 고려 말 稼亭 李穀의 「夫餘懷古」시가 지어진 이후, 조선 초기에는 徐居正 등 여러 문인들에 의해 여러 편이 지어졌다. 16세기에는 漁村 沈彦光을 비롯하여 蘇世讓, 鄭士龍, 李滄, 洪春卿, 羅世纘, 李洪男, 高敬命, 黃俊良, 具鳳齡, 李純仁, 李達, 洪迪, 李春英, 申欽 등 15명의 문인에 의해 백제사에 대한 회고의 정서를 담고 있는 시 44편이 지어졌다.

조선 초기에 지어진 백제 회고시는 『三國史記』와 같은 史書와 다르게 백제사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여, 백제의 부흥운동에 참여한 지수신과 福信을 영웅적 삶으로 묘사하여 찬양하기도 하였고, 백제의 멸망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자왕에게 전가하지 않고 당대의 국정에 참여한 신하들도 공통의 책임이라고 하였으며, 백제사를 통해 당대의 현실을 寓意하여 비판한 시가 다수 지어졌다.³⁶⁾ 반면 16세기에는 역사의 무상감을 드러낸 시가 주된 내용이며, 황준량 등 소수의 문인에 의해 당대 현실의 문제를 寓意한 시들이 지어지고 그 작품 수도 많지가 않았다.

이처럼 16세기에는 문인들이 지은 백제 회고시가 많지 않고, 그 내용도 역사의 무상감으로 흐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6세기는 연산군의 弊政이 중종반정으로 종식되고 외부적으로는 조선의 건국이념인 성리학적 정치 이념에 충실한 정치 현실로 복귀되었지만

35) 이철희, 「영사시와 회고시에 대한 시학적 이해」, 『한국어문학연구』 제54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p.354.

36) 이동계, 앞의 논문, 2012, pp.339-343. 참조.

여전히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는 權貴들과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사람들 간의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어 기묘사화, 을사사화, 정미사화 등 정치적 파행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는 중종반정을 계기로 사림과 문인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여 훈구파와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기존의 사회정치적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시기였다. 즉 사림파들은 자신들이 꿈꾸던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개혁을 기획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구했던 실천관료였다. 이들은 성리학적 학문태도를 견지하면서도 관각문학을 포용하는 개방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학적 이념’과 ‘교화의 도구’로 활용하여 전국민을 교화시켜 성리학적 이상사회를 구현하려고 하였다.³⁷⁾ 그래서 이들은 윤리규범서의 편찬과 보급을 통해 성리학적 윤리 도덕을 보급함으로써 사회 개혁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는 과거 역사에 대한 관심보다는 당대 사회 개혁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 과거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이 미약하였다. 그리하여 15세기 후반인 성종조의 문인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삼국의 역사에 대한 회고와 감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매우 빈약하게 되었다.

또한 16세기에는 성리학이 심화되고 보편화되면서 문인들은 성리학적 역사관에 부지불식간에 혼입되어 있었다. 유학에 있어서 역사는 사실 이전에 교훈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그것은 교훈으로서의 기능과 비판과 경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나아가 교화[통치]의 준거가 되는 것이 역사였다. 그리하여 군주는 매일같이 經筵에 나아가 신하들과 經史를 토론하여야만 했다. 經史의 학습을 통해 국왕을 위시한 국정 운영자들이 정치적 본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합의를 공유하는 것이었다.³⁸⁾

37) 정출현, 「16세기 서사문학사의 지평과 그 미학적 층위」, 『한국민족문화』 26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p.152. 참조.

경연의 중심 교재는 六經과 주자에 의해 재정리된 『資治通鑑綱目』이었다. 『자치통감강목』은 우리의 역사가 아닌 중국의 역대 역사 가운데 성리학적 관점에서 중국사를 재정리한 책이다. 그러므로 문인들은 『자치통감강목』을 통해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였으나 우리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여 깊은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

나아가 16세기 문인들의 백제사에 대한 이해는 鮮初의 인식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16세기 이전 백제사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 저작인 『三國史記』와 『三國遺事』가 있으며, 조선 초기 權近의 『東國史略論』과 崔溥의 『東國通鑑論』 등이 있다. 이 책 속의 기록은 백제의 역사가 꽤 많은 역사이기 때문에 후인들의 기록이 매우 소략하여 삼국사기의 기록을 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식도 부정적이었다.³⁹⁾

그리하여 문인들은 각각의 사상과 신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대 현실에 대한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전 시대에 비해 역사적인 관심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백제사에 대한 회고적 감정을 드러낸 시는 전 시대인 선초에 비해 많이 지어지지 않았으며, 지어진 시도 거의 대부분 당대의 현실과 거리가 먼 역사의 무상감만 드러내고, 감계의 정서를 드러낸 시는 황준량 등 소수의 문인에 의해 지어졌으며, 그 내용도 지치주의 관점에서 의자왕을 비판하고 성충을 褒揚하는 시각으로 드러난 것이다.

38) 오항녕, 「조선 초기 경연의 『자치통감강목』 강의」, 1997, p.116.

39) 16세기 이전 백제사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의 『三國史記』와 『三國遺事』가 있으며, 이 책 속의 기록은 신라는 물론 고구려의 역사에 비해 매우 소략하며, 그 기록마저도 부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조선 초기의 백제사에 대한 기록은 權近의 『東國史略論』과 崔溥의 『東國通鑑論』 등이 있다. 이 책들은 『삼국사기』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여기에 유가적 입장에서 새로운 褒貶을 더하였을 뿐 『삼국사기』의 기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오항녕, 「性理學的 歷史觀의 成立」, 『朝鮮時代史學報』 제9집, 조선시대사학회, 1997, p.2. 참조.)

V. 結論

본고는 16세기 문인들에 의해 지어진 백제 회고시의 현황과 내용, 그 문학적 특징을 고찰하여서 백제 회고시에 대한 이해와 백제사의 인식의 단면을 살펴보았다.

16세기 문인들에 의해 지어진 백제 회고시는 16세기를 살았던 문인들의 보편적인 사상과 가치관, 당시의 시대 상황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16세기의 문인들이 가졌던 백제사에 대한 이해의 단면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 시기의 문인들이 성리학적 가치관으로 백제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그 이전과 이후, 즉 고려시대의 역사관과 실학과 문인들의 역사관과 차별성이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백제 회고시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부여를 비롯하여, 熊津[공주], 漢城[몽촌토성] 등 백제사와 관련된 유적지를 찾아와서 백제사와 관련된 유적·인물·사건·역사 등을 소재로 하여 지은 시를 말한다. 16세기에는 漁村 沈彦光을 비롯하여 蘇世讓, 鄭士龍, 李漑, 洪春卿, 羅世纘, 李洪男, 高敬命, 黃俊良, 具鳳齡, 李純仁, 李達, 洪迪, 李春英, 申欽 등 15명이 문인에 의해 백제사에 대한 회고의 정서를 담고 있는 시 44편이 지어졌다.

조선 초기의 백제회고시는 백제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내용도 鑑戒가 주된 내용인 반면 16세기에는 역사의 무상감을 드러낸 시가 주된 내용이고, 황준량 등 소수의 문인에 의해 당대 현실의 문제를 寓意한 시들이 몇 수밖에 지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에 대한 관심이 전시대에 비해 沮喪되었다. 16세기는 연산군의 弊政이 중종반정으로 종식되고 외부적으로는 조선의 건국이념인

성리학적 정치 이념에 충실한 정치 현실로 복귀되었지만 여전히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는 權貴들과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士林들 간의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어 기묘사화 등 정치적 파행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리하여 문인들은 당대 현실에 대한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전 시대에 비해 역사적인 관심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둘째,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16세기에는 성리학이 심화되고 보편화되면서 문인들은 성리학적 역사관에 부지불식간에 혼숙되어 있었다. 군주는 매일같이 經筵에 나아가 신하들과 經史를 토론하여야만 했다. 경연의 중심 교재인 『資治通鑑綱目』은 朱子에 의해 중국의 역대 역사 가운데 성리학적 관점에서 중국사를 재정리한 책이다. 그러므로 문인들은 이 책을 이해하는데 주력하였고, 정작 우리의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

셋째, 백제사에 대한 이해가 鮮初의 인식범위를 넘지 못하였다. 16세기에는 국가나 개인이 우리의 역사에 대한 재정리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16세기 이전에 이루어진 역사서를 통해 백제사를 이해하였다. 즉 『三國史記』, 『三國遺事』, 조선 초기 權近의 저작인 『東國史略論』과 崔溥의 『東國通鑑論』 등을 통해 백제사를 이해하였는데, 이들 책 속에 기록된 백제사는 매우 소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백제사에 대한 회고적 감정을 드러낸 시는 전 시대인 선초에 비해 많이 지어지지 않았으며, 지어진 시도 거의 대부분 당대의 현실과 거리가 먼 역사의 무상감만 드러내고, 감계의 정서를 드러낸 시는 황준량 등 소수의 문인에 의해 지어졌으며, 그 내용도 지치주의 관점에서 의자왕을 비판하고 성충을 褒揚하는 시각으로 드러났다.

본고는 백제 회고시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는 시도로서 16세기에 지어진 백제 회고시의 현황과 내용, 특징을 살펴보았으나, 회고시가 적게 지어진 이유, 개별 작품에 대한 피상적인 분석에 그친 것이 아쉬움이 남으며 추후 후속 연구자의 심화를 기대한다.

<參考 文獻>

- 高敬命, 『霽峯集』, 『韓國文集叢刊』 42.
具鳳齡, 『栢潭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39.
羅世繼, 『松齋遺稿』, 『韓國文集叢刊』 28.
申 欽, 『象村稿』, 『韓國文集叢刊』 71.
沈彥光, 『漁村集』, 『韓國文集叢刊』 24.
李 穀, 『稼亭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3.
李 達, 『蓀谷詩集』, 『韓國文集叢刊』 61.
李純仁, 『孤潭逸稿』, 『韓國文集叢刊』 53.
李春英, 『體素集』, 『韓國文集叢刊』 66.
李 滄, 『溫溪先生逸稿』, 『韓國文集叢刊』 27.
李荇外, 『新增東國輿地勝覽』, 민족문화추진회, 1982.
李洪男, 『汲古遺稿』, 『溫溪先生逸稿』 續2.
一然·이동환 역주, 『三國遺事』, 삼중당, 1973.
정구복 외, 『譯註 三國史記 1·2·3·4·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鄭士龍, 『湖陰雜稿』, 『韓國文集叢刊』 25.
洪 迪, 『荷衣遺稿』, 『韓國文集叢刊』 續6.
黃俊良, 『錦溪集』, 『韓國文集叢刊』 37.
『大東野乘』, 경희출판사, 1969.
『忠淸道邑誌』,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84.
『陳書』, 중화서국.
- 김 범, 「朝鮮 中宗代 歷史像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사학보』 제17호, 고려사학회, 2004.
양종국, 「백제 부흥운동과 웅진도독부의 역사적 의미」, 『백제문화』 제35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6.
오석원, 「유교 역사관의 재구성」, 『人文科學』 제29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 오항녕, 「조선 초기 경연의 『자치통감강목』 강의」, 『한국사상사학』 제9집, 한국사상사학회, 1997.
- , 「性理學的 歷史觀의 成立」, 『朝鮮時代史學報』 제9집, 조선시대사학회, 1997.
- 劉若愚 著·李章佑 譯, 『中國詩學』, 명문당, 1994.
- 유혜영, 「‘회고’의 세 가지 개념에 관한 소고」, 『중국문학이론』 제9집, 한국중국문학이론학회, 2007.
- 이동재, 『梅溪 曹偉의 삶과 문학』, 보고사, 2004.
- , 「조선초기 백제회고시 연구」, 『동방한문학』 제52집, 동방한문학회, 2012.
- , 「추강 남효온의 백제회고시 연구」, 『한문고전연구』 제26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89.
- 이철희, 「영사시와 회고시에 대한 시학적 이해」, 『한국어문학연구』 제54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 정출현, 「16세기 서사문학사의 지평과 그 미학적 층위」, 『한국민족문화』 26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 진경환, 「부여회고시의 몇 가지 양상」, 『한민족문화연구』 제40집, 한민족문화연구학회, 201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민족대백과사전』, <지치주의>조, 2015. 04. 1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1876&cid=46649&categoryId=46649>”

Abstract

*A Study on 16th century Literary Men's Poems Reminiscing
about the Baekje Dynasty* / Lee Dong Jae***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contents, and literary characteristics of poems reminiscing about the Baekje Dynasty written by literary men in the 16th century and ultimately to broaden our understanding of poems reminiscing the Baekje.

Poems reminiscing about the Baekje Dynasty refer to poems composed on the theme of remains, people, events, and history related to Baekje by those who visited the remains of the Baekje Dynasty including Buyeo, the last capital of Baekje.

There are 44 extant poems reminiscing about the Baekje Dynasty written by 14 literary men in the 16th century including So Se-yang(蘇世讓). The contents of the poems are mostly about the vanity of history, and a few literary men such as Hwang Jun-ryang wrote poems satirizing the realities in those days but the number is small.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different from that in the 15th century, 16th-century Joseon was already rooted deeply into the Neo-Confucian value, the national founding ideology of Joseon, in various aspects of the state including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However, there were a series of political incidents including Gimyosahwa(己卯士禍: massacre of Confucian scholars in 1519) resulting from continuous political conflicts between aristocrats monopolizing power and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Kongju National University in 2014.

**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Sino-Korean Classics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 / leedj@kongju.ac.kr

wealth and those anxious for new politics. As a result, literary men's interest in history was generally diminished far lower than that in the past.

Second, as Neo-Confucianism was deepened and popularized in the 16th century, the Neo-Confucian view of history soaked into literary men unknowingly. The king had to attend the learning session[經筵] everyday and discussed Confucian texts and history with the subjects. The main textbooks of the learning session were Liujing[六經: the Six Classics] and Jachitonggangangmok(資治通鑑綱目) reorganized by Chu-his. Jachitonggangangmok is a book of Chinese history, not Korean, restructured from the Neo-Confucian viewpoint based on existing Chinese history books. Therefore, literary men versed in Jachitonggangangmok, namely, Chinese history but did not have keen interest in and deep knowledge of Korean history.

Third, because there were not works for organizing Korean history in those days, the knowledge of Baekje history could not go beyond the records in Samguksagi, and people's perception of Baekje history was negative.

For these reasons, there were not many poets and poems revealing reminiscent emotions on Baekje history compared to those in the early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and most of written poems expressed the vanity of history irrelevant to the realities in those days. Only few literary men including Hwang Jun-ryang exposed their sentiment of lamentation and admonition in their poems, which criticized King Euija and adored Seongchung from the viewpoint of ultimate governing ideology[至治主義].

【Key words】 Baekje history[百濟史], Reminiscent poems[懷古詩], Neo-Confucianism[性理學], Learning session[經筵], King Euija[義子王], Seongchung[成忠], Buyeo[夫餘]

투고일 : 4월 20일, 심사일 : 5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8일